

I. 序 論  
II. 研究方法  
III. 研究結果  
IV. 結 論

## I. 序 論

### 1. 研究의 背景 및 必要性

老人의 경우 生産技術 및 體系의 급격한 變化에 따른 要求에 적절히 對應할 수 있는 知識과 技術의 習得에서 뒤지게 되어 經濟的 地位가 下落되고, 老齡化에 따른 健康弱化, 社會的 役割의 減少 및 喪失, 그리고 老後對備策의 未洽 등으로 인하여 經濟·社會·心理的 依存의 慾求가 높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依存性의 增加에 비하여 老人 자신의 老後對備나 家族 또는 社會의 支援이 매우 未洽한 實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제까지 주로 老人扶養을 擔當해왔던 家族의 構造變化 특히 核家族化에 따른 老人과 子女의 分離現象이 급속히 進行된 반면 이러한 1차적 支援體系의 變化에 대비한 社會적인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기인하고 있다. 즉, 老人問題는 老人의 依存性 增加와 老人自身의 對備 및 家族, 社會의 支援體系의 未洽이라는 두가지 側面에서 發生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노인들중에서도 家族과 分離되어 獨立된 家口로 生活하고 있는 單獨家口 老人들의 問題는 보다 深刻性을 띠 수 있다. 老人單獨家口는 이미 그 規模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으며, 그 增加率이 全體 老人人口의 增加率보다도 높을 것이라고 豫測할 수 있으며, 특별한 外部支援體系가 없는 狀態에서 스스로의 慾求를 解決해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研究員.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적인 어려움에 直面하게 되며, 例外的이고 一般的인 現象이 아니라 老年期의 일반적인 家口形態중의 하나로 轉換되어간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老人福祉施策은 老人單獨家口의 독특한 慾求나 現在의 生活實態 및 未來의 轉換方向에 맞게 施行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重要性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老人單獨家口에 대한 福祉政策이나 學問的 研究는 認識不足으로 인하여 극히 皮相的이며 體系的이지 못하고 制限된 部分에서만 이루어져 왔으며, 따라서 老人單獨家口의 精確한 實態에 대한 基礎資料조차도 극히 未洽한 實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向後 老人單獨家口의 問題點과 重要性이 깊이 認識되고 이들에 대한 福祉政策이 올바르게 遂行되려면 우선 老人單獨家口의 現在 生活實態를 精確히 把握하여, 이들이 어떠한 社會支援을 어느 정도 必要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全國的 代表值를 갖는 具體的인 調査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背景下에서 實施된 本 研究는 老人單獨家口의 問題解決에 있어서 실제적인 첫단계가 된다는 점에서 큰 意義를 가질 것이다.

## 2. 研究의 目的

本 研究는 老人單獨家口에 대한 具體的인 福祉政策의 樹立에 앞서 이에 必要한 諸般 生活實態의 把握과 問題點 導出의 次元에서 施行되었는데, 그 具體的인 目的은 (1) 老人單獨家口의 地域別 分布 把握, (2) 老人單獨家口의 全般的 生活實態를 把握하는데 있다.

## 3. 老人單獨家口의 概念

本 研究에서는 研究目的에 비추어 ‘老人單獨家口’의 概念을 ‘滿 60歲 以上の 老人이 子女 또는 親戚과 同居하지 않고 獨身 또는 夫婦로 滿 1個月 以上 獨立된 家口形態로 生活하고 있는 家口’로 定義하였으며, 老人單獨家口에는 다음과 같은 細部形態의 家口가 포함된다.

### 1) 老人獨身家口 :

- ① 男獨身家口 : 男子老人이 滿 60歲 以上인 獨身家口
- ② 女獨身家口 : 女子老人이 滿 60歲 以上인 獨身家口

## 2) 老人夫婦家口 :

- ① 兩夫婦家口 : 夫婦가 모두 滿 60歲 以上인 老人夫婦로 구성된 家口
- ② 男夫婦家口 : 夫婦중 男子老人만이 滿 60歲 以上이고, 그 配偶者는 滿 60歲 未滿인 老人夫婦로 구성된 家口
- ③ 女夫婦家口 : 夫婦중 女子老人만이 滿 60歲 以上이고, 그 配偶者는 滿 60歲 未滿인 老人夫婦로 구성된 家口

## II. 研究方法

本 研究의 研究方法은 實態調查를 根幹으로 하였으며, 文獻研究를 통해서 分析의 內容를 補完하였다.

### 1. 標本調査

#### 1) 調査對象

本 調査에서는 調査單位를 ‘家口’와 ‘個人’으로 區分하여 實施하였다. 調査對象家口는 1988년 7월 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老人이 子女 및 親戚과 同居하지 않고 獨身 또는 夫婦로 만 1개월 이상 독립된 家口形態로 생활하고 있는 家口를 말하며, 調査對象老人은 家口内の 滿 60歲 以上の 老人으로 규정하였다. 즉, 調査對象家口는 「全國人口保健實態調査」의 過程에서 확인된 老人獨身家口와 老人夫婦家口 모두가 포함되며, 調査對象老人은 男夫婦家口와 女夫婦家口에서 만 60세 이상인 老人만이 調査對象이 되며 만 60세 미만인 그 配偶者는 除外되었다.

#### 2) 標本抽出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의 標本調査區는 1988년도 多目的 基本標本調査區를 이용하여 抽出하였는데, 먼저 1985년 인구센서스 조사구중에서도 施設單位의 調査區와 섬 地域의 調査區를 제외한 나머지의 約 146,900個의 普通調査區를 多目的 基礎標本調査區의 抽出對象 調査區로 하였다. 邑·面·洞別로 抽出對象 調査區를 統合하여 基礎單位調査區를 設定하여, 크기의 測度<sup>1)</sup>가 10以上이 되도록 조사구를

1) 크기의 측도란 인구센서스 당시의 가구수를 10으로 나누어 반올림한 결과이다.

통합하여 하나의 基礎單位調查區로 하였다. 이 基礎單位調查區를 産業特性에 따라 1차분류한 후, 다시 주된 住宅特性에 의하여 아파트調查區, 一般住宅調查區, 聯立住宅調查區, 其他調查區로 2차분류 하였으며, 아파트조사구에 한해 中央煖房調查區와 其他煖房調查區로 다시 分類하였다. 그 후에 2개씩의 基礎單位調查區로 구성된 抽出單位 調查區를 市부와 郡部에서 각 350개씩 系統抽出하여 多目的 基本標本 調查區로 하였다.

이 多目的 基本標本調查區중에서 市부의 204個 基本標本調查區와 郡부의 92個 基本標本調查區를 系統抽出하여 實查標本調查區로 하였으며, 濟州道 本島를 제외한 全國의 섬지역에서는 섬지역이라는 特殊性과 交通을 고려하여 3개의 抽出單位 調查區를 實查標本調查區로 有意抽出하였다. 1985년 인구센서스 이후의 신축아파트에서는 市部 5개, 郡部 1개 아파트를 系統抽出하였다. 「전국인구보건실태조사」의 305個 實查標本調查區의 모든 家口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總 家口數는 73,570 家口가 되었으며, 調查對象家口의 94.0%에 해당하는 69,125가구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本 研究의 對象인 老人單獨家口의 適格家口는 3,653家口였으며, 單獨家口老人數는 4,883名이었고, 3,536家口(96.8%)와 4,698명의 老人(96.2%)에 대하여 調查完了하였다.

그러나 各 實查標本調查區의 抽出確率에 層別 크기의 測度 및 調查區別 크기의 測度和 「全國人口保健實態調查」의 家口調查 完了率이 實查標本調查區마다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調查區別 乘數를 適用하여 加重標本實數值를 산출하였다.

### 3) 資料蒐集節次

「老人單獨家口實態調查」는 調查員이 調查表에 의하여 面接調查를 實施하는 方法으로 實施되었다. 조사팀은 각각 調查指導員 1명과 調查員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조사팀이 한 調查區의 家口를 모두 調查하고 다음 地域으로 移動하는 方法으로 실시되었다. 第1次 調査는 1988.8.1~9.17, 第2次 調査는 1988.10.20~12.4에 걸쳐, 構造化된 設問紙를 가지고 直接的 面接方式을 통하여 調查하였다.

### 4) 資料分析方法

符號化된 資料는 電算處理를 위해 資料修正作業을 거쳐 테이프에 貯藏하였으며, 家口와 人口單位의 2개 파일(file)로 구성하였다. 입력된 資料는 SPSS를 使用하여 統計分析하였는데, 資料分析에 사용된 SPSS의 하위 프로그램은 Frequency, t-test, Chi-Square 檢證 및 變量分析 등이다.

## 2. 研究의 制限點

本 研究에 있어서의 制限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老人單獨家口에 대한 既存의 理論的, 實際的 研究가 未洽하여 老人單獨家口를 體系的 模型下에서 심층적으로 分析할 수 없었다.

둘째, 本 研究의 目的에 合當한 獨自的 標本抽出 및 實態調查가 施行되지 못한 관계로 다른 形態의 老人家口 및 施設老人의 生活實態와 比較할 수가 없었다.

## III. 研究結果

### 1. 一般的 事項

#### 1) 老人單獨家口の 分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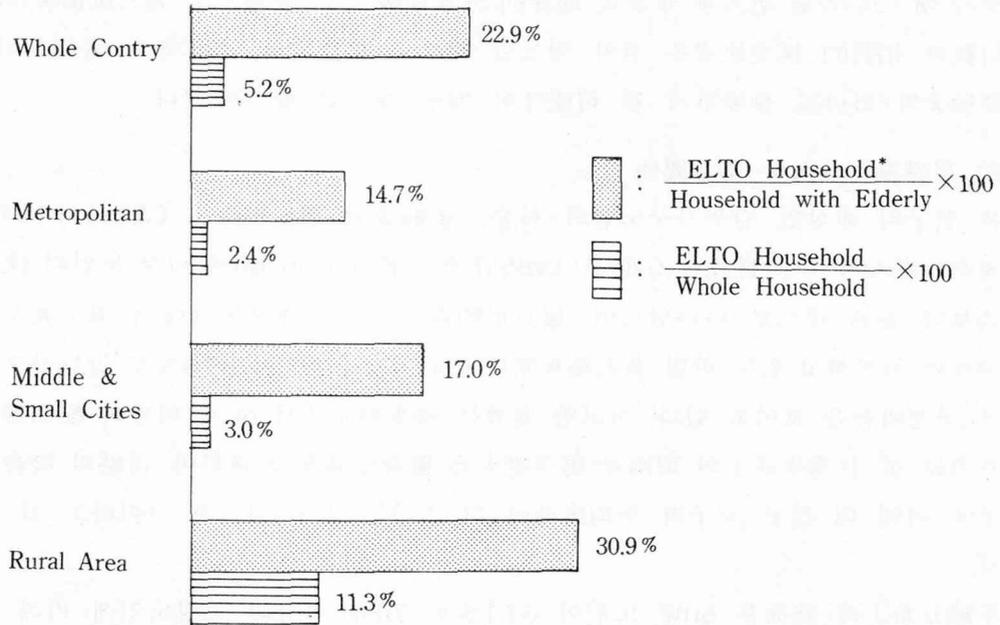
「全國人口保健實態調查」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의 6個 大都市 141個 調查區, 其他 中小都市 68個 調查區, 郡部 96個 調查區에서 69,125家口에 대하여 調查를 完了하였는데, 이들중에서 老人單獨家口는 3,577家口로 22.0%가 大都市에, 13.4%가 中小都市에, 64.6%가 郡部に 分布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全國人口保健實態調查」의 調查完了家口中에서 老人單獨家口가 차지하는 比率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國的으로 5.2%이며, 地域別로는 大都市가 2.4%, 中小都市가 3.0%, 郡部の 경우는 11.3%로 나타나 郡部에서 老人單獨家口가 全體家口中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현격하게 높았다. 老人家口中에서 老人單獨家口가 차지하는 比率은 全國的으로 22.9%이며, 地域別로는 大都市 14.7%, 中小都市 17.0%, 郡部 30.9%로 나타나, 全體家口中的 構成比率과 비슷한 樣相을 띠고 있었다.

老人單獨家口내에서의 家口形態別 構成比率을 보면 老人獨身家口가 41.9%, 老人夫婦家口가 58.1%로 老人夫婦家口的 構成比率이 16% 정도 높았다. 地域別로도 老人夫婦家口的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은 樣相을 보이지만, 細部家口形態別로는 女獨身家口(37.4%), 兩夫婦家口(35.2%), 男夫婦家口(21.9%)의 順으로 높은 構成比率을 보였으며 나머지 男獨身家口와 女夫婦家口는 5%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Figure 1. Distribution of ELTO Household by Region

地域別 老人單獨家口の 分布



\*ELTO Household: Household of the elderly living on their own

본 연구의 研究結果와 既存의 老人單獨家口에 대한 資料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비교해보면, 全體家口중에서의 老人單獨家口の 比率은 1.1% 포인트 增加<sup>2)</sup>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老人家口中에서의 比率은 2.4%포인트 增加<sup>3)</sup>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老人單獨家口の 增加推移를 日本의 推計資料와 비교해보면 日本은 1990년도에 全體家口중에서의 老人單獨家口の 比率이 12%로 증가하여 1985년에 비해 1.5% 포인트 增加할 것으로 豫想<sup>4)</sup>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老人單獨家口の 構成比率은 日本에 비해 낮지만, 增加推移에 있어서는 비슷한 傾向을 보이고 있다.

- 2) 1985년도 인구센서스에서 노인가구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만 포함된다.(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 1985 참조)
- 3) 1985년도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조사의 노인단독가구의 개념에는 경제력이 없는 미성년자녀와 손자녀가 동거하는 가구가 포함된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1985, p.25, 84 참조)
- 4)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ねか國世帯數の將來推計(試論), 昭和62.

이상의 結果를 근거로 볼 때, 아직도 家族이나 親戚 등과 同居하는 老人이 地域에 상관없이 높은 分布를 보이고 있으나, 核家族化의 進展과 都市地域에서의 雇傭就業者의 增大로 인한 老人과 子女의 地理的 分離現象 등의 影響으로 老人單獨家口의 絶對數와 相對的 構成比率은 점차 增加할 것으로 豫想되며, 老年期の 普遍的 家口形態중의 하나로 登場하게 될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2) 單獨家口老人의 基本屬性

본 연구의 대상인 단독가구노인의 性別, 年齡等의 基本屬性은 <表 1>과 같다. 單獨家口老人의 男女 性比는 0.84로 1985년 인구센서스<sup>5)</sup>의 60세 이상 노인의 性比 0.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家口形態別로는 老人夫婦家口에서 男子老人이 61.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老人獨身家口에서는 女子老人이 89.4%로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差異는 調査對象에서 60세 미만의 配偶者가 除外되는 점, 日常生活上의 理由로 男子老人은 獨身生活을 기피하며, 再婚의 機會가 女子에 비해 더 많고 女子의 平均壽命이 더 길다는 점에 기인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年齡分布上의 特徵은 60대 노인이 67.1%로 70세 이상의 고령노인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는 점인데, 年齡에 따른 家口形態의 構成比率을 보면 老人夫婦家口의 경우 60~64세 노인의 73.8%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반면 老人獨身家口의 경우는 그와 反對의 樣相을 띠고 있다.

結婚狀態에 있어서의 特徵的 傾向은 남녀 모두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有配偶率이 減少한다는 점과 女子老人의 유배우율이 男子老人보다 낮다는 점, 그리고 남자노인의 유배우율이 各 年齡層에서 모두 90% 이상을 上廻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여자노인의 유배우율이 남자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女子老人의 經濟的 能力이나 社會 및 家族내에서의 役割 등과 關聯性이 있을 것이다.

教育程度를 살펴보면 無學이 5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國卒이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中學 以上の 教育을 받은 老人은 13%에 불과하다. 年齡別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教育정도가 낮으며, 性別로는 여자노인의 教育정도가 낮았다.

5) 경제기획원, *op.cit.*, pp.32~33.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ELTO by the Type of Household**

家口形態別 單獨家口老人의 基本屬性

(Unit : %)

| Characteristics   | Both    | Single  | Couple  |
|-------------------|---------|---------|---------|
| Sex               |         |         |         |
| Male              | 45.5    | 10.6    | 61.4    |
| Female            | 54.5    | 89.4    | 38.6    |
| Age               |         |         |         |
| 60~64             | 36.7    | 30.8    | 39.4    |
| 65~69             | 30.4    | 28.9    | 31.1    |
| 70~74             | 19.8    | 22.4    | 18.6    |
| 75+               | 13.0    | 17.8    | 10.9    |
| Educational Level |         |         |         |
| No Schooling      | 59.3    | 76.3    | 51.6    |
| Self-Education    | 1.6     | 0.6     | 2.1     |
| Primary School    | 26.0    | 17.4    | 30.0    |
| Middle School     | 6.1     | 2.7     | 7.7     |
| High School       | 3.8     | 1.7     | 4.7     |
| College and More  | 3.1     | 1.2     | 3.9     |
| Total             | 100.0   | 100.0   | 100.0   |
| (N)               | (4,602) | (1,436) | (3,166) |

## 2. 經濟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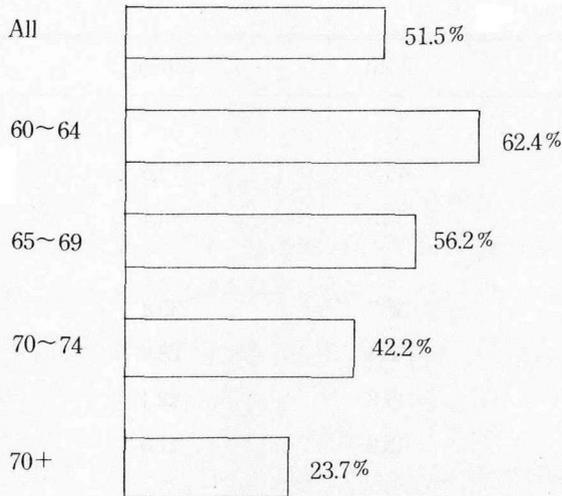
### 1) 就業現況

단독가구노인들의 就業與否를 勤勞收入의 有無에 따라 判別해본 結果<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독가구노인의 51.5%가 就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60세이상 노인의 就業率 32%보다 20%정도 더 높았다<sup>6)</sup>. 年齡別로 보면, 60~64세 노인의 62.4%, 65~69세 56.2%, 70~74세 42.2%, 75세 이상

6) 노인의 취업률 = 60세이상 경제활동인구 / 60세이상 노인인구수 × 100 (경제기획원, *op.cit.*, 1985.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7 참조).

Figure 2. Employment Rate by Age

年齡別 就業率



노인의 23.7%가 就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年齡增加와 함께 就業率은 減少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75세 이상 노인에게 있어서 就業率이 급격히 減少하고 있다. 性別로는 男子老人의 60.0%, 女子老人의 44.3%가 취업하고 있었는데 男女의 就業率은 年齡이 增加함에 따라 그 隔差가 深化되는 傾向이 있었다.

취업하고 있는 노인들의 職種을 韓國標準職業分類에 따라 大分類한 結果<sup>7)</sup>를 보면, 農水産業에 종사하는 노인이 74.5%로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生産 및 單純勞務職(10.3%), 販賣職(7.1%), 서비스職(3.7%), 專門技術職(3.1%)의 순이었으며, 事務職과 其他職種은 1%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미미한 비율을 보였다. 性 및 年齡別 就業職種에서도 農水産業, 生産 및 단순노무직, 판매직의 순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으나 農水産業에 從事하는 老人의 絶對數와 構成比率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地域別로는 大都市에서는 販賣職(25.8%), 中小都市 農水産業(40.5%), 郡部 農水産業(86.8%)에 종사하는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就業老人들의 勤勞收入은 월 '5만원 미만'이 26.8%, '5만~10만원'이 29.8%,

7) 경제기획원, 한국표준직업분류, 1977.

‘10만원~20만원’이 26.5%로 20만원 미만의 근로수입이 있는 노인이 83%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月平均 勤勞收入額은 13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地域別로는 大都市에서 취업하고 있는 노인은 25만 3천원, 中小都市 19만 4천원, 郡部 9만 7천원으로 대도시와 군부사이에서는 월평균 근로수입액에서 15만원 이상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職種別로는 農水産業에 종사하는 노인의 月平均 勤勞收入이 10만 4천원으로 우리나라 全體 農水産業 從事者의 27만 7천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다.<sup>8)</sup>

취업하고 있는 노인들의 就業理由를 보면 ‘돈이 필요해서’가 53%로 취업노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健康을 維持하기 위해서’(10.9%), ‘時間을 보내기 위해서’(10.7%)의 순이었으나 獨身老人의 경우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夫婦老人의 경우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經濟的 理由 다음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였다. 한편 취업하지 않고 있는 노인들의 就業않는 理由를 보면, ‘健康이 좋지 않아서’(39.5%), ‘일하는 것이 힘들어서’(31.9%)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노인들의 希望職種으로는 단순한 직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 2) 생활비 마련방안

본 연구에서는 生計維持에 必要한 收入을 어떠한 方案을 통해서 얻는지를 파악해보기 위해 생활비 마련방안을 11가지로 區分하여 조사하였는데, 11가지 생활비 마련방안중에서 한가지 收入源에 依存하고 있는 경우가 65.4%로 전체의 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두가지가 31.5%였으며, 세가지 이상의 수입원이 있는 가구는 3%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와같은 수입원중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主로 依存하고 있는 收入源은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勤勞收入이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子女援助, 財産所得, 生活保護의 順으로 나타나 이 세가지 마련방안에 의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구가 전체의 84% 정도에 이르고 있다. 家口形態別로는 老人獨身家口의 경우 자녀원조가 31.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근로수입, 생활보호, 재산소득으로 老人夫婦家口에 비해 자녀원조와 생활보호에 生活費를 依存하는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았다. 地域別로는 大都市(36.1%)와 中小都市(33.0)의 경우는 자녀원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郡部에서는 주로 근로수입(53.0%)에 의해

8) 노동부, *op.cit.*, 1987, p.222.

**Table 2. Major Source for Living Expenses by the Type of Household**

家口形態別 主된 生活費 마련方案

(Unit : %)

| Major Source                   | Both    | Single  | Couple  |
|--------------------------------|---------|---------|---------|
| Earned Income                  | 44.6    | 29.7    | 55.2    |
| Support from Adult Children    | 28.8    | 36.1    | 23.6    |
| Interests & Rents Received     | 10.2    | 13.0    | 8.2     |
| Public Assistance              | 7.2     | 14.1    | 2.3     |
| Spouse's Income                | 4.1     | 0.2     | 6.8     |
| Deposits                       | 2.2     | 2.0     | 2.3     |
| Support from Relatives         | 0.8     | 1.7     | 0.2     |
| Support from Friends/Neighbors | 0.3     | 0.8     | -       |
| Pension                        | 0.8     | 0.9     | 0.8     |
| Veterans' Benefits             | 0.5     | 0.7     | 0.3     |
| Others                         | 0.5     | 0.8     | 0.3     |
| Total                          | 100.0   | 100.0   | 100.0   |
| (N of HH)                      | (3,443) | (1,425) | (2,018) |

생활비를 마련하는 가구가 많았다.

이상의 주된 생활비 마련방안을 토대로 하여 老人單獨家口가 다른 支援體系의 支援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를 ‘經濟的 自立型’, 家族·地域社會·國家 等の 支援를 받는 경우를 ‘經濟的 依存型’으로 구분해 보면, 自立型이 57.0%, 家族依存型이 32.9%, 社會保障依存型이 8.5%, 地域 및 親戚依存型이 1.1%, 其他가 0.5%로 나타났다. 즉, 自立型和 가족, 친척, 이웃의 원조 등의 私的扶養을 받는 가구가 90%에 이르러 현재까지는 公的扶養을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 3) 月生活費 및 負債現況

老人單獨家口의 경우 家口員數가 적은 관계로 일반적으로 普通家口에 비하여 生計維持에 필요한 生活費의 支出規模가 적은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결과 노인 단독가구의 60% 이상이 월 15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生活費 支出規模는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만~15만원’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만~10만원’, ‘25만원 이상’, ‘15만~2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平均 月生活費 支出額은 13만 5천원이었다.

이러한 月生活費 支出規模를 家口形態別로 살펴보면, 老人獨身家口의 月平均 生活費가 8만 9천원인데 비해 老人夫婦家口는 16만 8천원으로 노인부부가구의 생활비 지출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여러가지 要因에 의한 差異일수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家口員數의 差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地域別로는 中小都市의 月平均 生活費가 14만 7천원인데 비해 大都市는 4만 2천원이 많았고, 郡部는 3만 2천원이 적었다. 이러한 老人單獨家口의 月平均 生活費는 우리나라의 市部와 郡部の 平均 家口員數가 각각 4.10, 4.27명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全體 都市地域家口의 月平均 家計支出 43만 8천원, 農村地域의 43만 3천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노인단독가구의 負債現況을 보면 全體 家口의 1/3 以上이 負債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地域別로는 大都市가 20.6%, 中小都市가 27.2%, 郡部가 40.2%로 郡部の 負債率이 大都市의 부채율보다 2배 정도, 家口形態別로는 老人夫婦家口 (43.0%)가 老人獨身家口의 2배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부채가 있는 가구의 平均 負債額數는 329만 5천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收支均衡을 이루지 못한 老人單

**Table 3. Monthly Living Expenditure by the Type of Household**

家口形態別 月生活費 支出規模

(Unit : %)

| Monthly Living Expenditure | Both    | Single  | Couple  |
|----------------------------|---------|---------|---------|
| Under 50 Thousand Won      | 10.7    | 19.9    | 4.3     |
| 50~100 Thousand Won        | 22.4    | 33.5    | 14.6    |
| 100~150 Thousand Won       | 29.7    | 28.7    | 30.5    |
| 150~200 Thousand Won       | 11.7    | 6.6     | 15.3    |
| 200~250 Thousand Won       | 10.9    | 4.8     | 15.2    |
| 250 Thousand Won and Over  | 14.5    | 6.5     | 20.1    |
| Total                      | 100.0   | 100.0   | 100.0   |
| (N of HH)                  | (3,465) | (1,436) | (2,029) |

9)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87.

농림수산부,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서, 1988.

獨家口의 經濟的 事情의 한 側面을 보여주는 것이며, 郡部에서의 부채율이 높다는 점과 郡部의 주된 생활비 마련방안이 근로수입인 가구가 절반 이상이었다는 점을 연관시켜보면, 外部支援體系없이 노인 자신이 일해서 버는 근로수입만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3. 健康事項

#### 1) 主觀的 健康評價

조사대상 노인들에게 현재의 有病狀態와는 관계없이 비슷한 연령층의 노인들과 비교하여 自身の 健康狀態에 대해 自己評價를 하게 한 결과 31.3%의 노인은 건강이 더 좋은 편이라고 하였으며, 비슷하다고 한 노인이 37.8%로 전체의 69% 정도에 달하는 노인이 비슷한 연령층의 노인보다 건강하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하였다. 性別로는 男子老人이 女子老人에 비해 자신의 健康狀態에 대해 더 肯定的인 評價를 내렸으며, 夫婦家口老人이 獨身家口老人에 비해 더 肯定的인 評價를 내리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해볼 때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獨身이 된 老人의 경우 家口內에서 情緒的, 社會的, 經濟的 및 健康上의 保護와 支持를 받을 수 있는 부부가구노인보다 자신의 健康狀態에 대한 滿足度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慢性疾患 有病狀態

단독가구노인에게 3개월 이상 앓아온 질환에 대해서 자기보고방식에 의거하여 개방식으로 질문하여 노인들의 만성질환 유병상태를 조사하였는데,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慢性疾患을 앓고 있는 老人이 49.0%이며, 두가지 이상의 重複疾患을 갖고 있다고 한 노인도 8.8%에 이르러 조유향과 윤현숙의 조사<sup>10)</sup>에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在家老人이 38.9%로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性別로는 男子老人의 43.4%, 女子老人의 53.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노인 공히 70代 前半까지는 年齡과 慢性疾患 有病狀態사이의 正的 關係가 성립하였으나 70代 後半 以上에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家口形態別로 獨身家口老人의 경우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56.2%인데 반하여 夫婦家口老人은 45.7%로 독신

10) 조유향, 윤현숙,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한림대 사회의학연구소, 1988, p.96.

**Table 4. Number of the Suffered Chronic Diseases by Sex**

性別 慢性疾患의 有無 및 數

(Unit : %)

| No. of Chronic Diseases | Both    | Male    | Female  |
|-------------------------|---------|---------|---------|
| No Chronic Disease      | 51.0    | 56.6    | 46.3    |
| 1 Chronic Disease       | 40.2    | 36.5    | 43.2    |
| 2 Chronic Diseases      | 2.5     | 6.3     | 8.5     |
| 3 Chronic Diseases      | 1.3     | 0.5     | 2.1     |
| Total                   | 100.0   | 100.0   | 100.0   |
| (N)                     | (4,599) | (2,096) | (2,503) |

가구노인이 만성질환을 앓는 비율이 1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疾患別 分布를 보면 醫療專門家들이 老人에게 頻發하는 慢性疾患이라고 지적한 여섯가지 질환중에서 관절염이 8.9%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뇌졸중 포함)이 8.0%, 해소·친식이 4.4%였으며, 심장병은 3.7%, 백내장과 당뇨병은 각각 1.3%, 2.0%의 노인이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섯가지 만성질환에 속하지 않은 其他疾患을 韓國標準疾病死因分類<sup>11)</sup>에 따라 분류한 결과를 보면 神經系 및 感覺器의 疾患을 앓고 있는 노인이 16.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는데 이 중에서도 신경통이 가장 많았다.

### 3) 醫療機關 利用實態

慢性疾患이 있는 老人을 對象으로 調査時點에서부터 지난 1個月間 醫療機關을 利用한 頻度を 各 疾患別로 調査하였는데,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성질환자의 24.2%는 醫療機關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33.8%의 노인은 월 1~3회, 42.0%의 노인은 4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病·醫院과 藥局을 월 1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41%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保健所와 韓醫院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80% 이상이 이용해 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주로 藥局과 病·醫院에서 治療나 療養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병원이나 약국이 居住하는 地域에서 利用하기 不便할 경우에는 保健所의 利用率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경제기획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979.

**Table 5. Uti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 per Month**

醫療機關別 月間 利用頻度

(Unit : %)

| Frequency  | All     | Pharmacy | Health Center | Clinic & Hospital | Oriental Clinic |
|------------|---------|----------|---------------|-------------------|-----------------|
| None       | 24.2    | 58.4     | 81.3          | 57.2              | 85.3            |
| 1          | 13.1    | 9.7      | 6.1           | 11.9              | 6.2             |
| 2          | 12.3    | 7.8      | 4.1           | 8.6               | 2.3             |
| 3          | 8.4     | 3.9      | 2.1           | 5.4               | 1.1             |
| 4 and Over | 42.0    | 20.2     | 6.4           | 16.9              | 5.1             |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N)        | (2,261) | (2,261)  | (2,261)       | (2,261)           | (2,261)         |

4) 日常生活 能力

본 연구에서는 聽力, 視力, 上·下肢機能, 睡眠, 記憶力 等の 身體 및 精神機能이 日常生活을 수행하는데 不便을 주는 程度와 清掃, 洗濯, 炊事 等과 관련된 家事活動을 함께 있어서 불편을 겪는 程度를 노인 스스로에게 평가하게 하였다. 단 독가구노인중에 79% 정도가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기능이나 활동을 함께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年齡增加와 함께 不便을 겪는 老人의 比率이 점차 높아져,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85% 이상이 한가지 이상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全般的인 日常生活 能力上的 不便程度와 관련된 여섯가지 기능이나 활동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聽力の 弱화 또는 損失과 睡眠障로 인해 불편을 겪는 노인이 각각 46%, 50% 정도였으며, 上·下肢機能의 退化로 인해서는 52% 정도의 노인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신체 및 정신기능과는 달리 취사,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家事活動에 있어서 불편을 겪는 노인은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2% 정도지만 年齡增加와 함께 不便을 겪는 老人의 比率이 8~10% 정도씩 증가하고 있으며, 70代 以上の 老人에게 있어서 家事活動能力의 弱化現像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性別로는 가사활동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女子老人의 불편정도가 더 심해 약 절반정도의 여자노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 남자노인은 약 1/3정도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性別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慢性疾患이 있는 老人의 경우에는 59% 정도가 불편을 겪는 반면 慢性疾患이 없는

**Table 6. Degree of Physical Difficulties in Home-Management by Age**

年齡別 家事活動上の 不便程度

(Unit : %)

| Deg. of Difficulties     | All     | 60~64   | 65~69   | 70~74 | 75+   |
|--------------------------|---------|---------|---------|-------|-------|
| No Difficulty at All     | 18.8    | 26.2    | 18.8    | 10.8  | 10.5  |
| No Difficulty as a Whole | 39.3    | 41.6    | 40.1    | 38.8  | 31.1  |
| Some Difficulties        | 29.0    | 23.8    | 28.4    | 34.9  | 36.2  |
| Lots of Difficulties     | 12.9    | 8.4     | 12.6    | 15.6  | 22.2  |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N)                      | (4,602) | (1,689) | (1,401) | (912) | (600) |

老人은 26% 정도가 불편을 겪고 있는 점으로 볼 때, 慢性疾患이 家事活動能力에 미치는 影響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4. 住居事項

##### 1) 住宅形態 및 所有狀態

노인단독가구의 住宅形態는 <表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單獨住宅이 92%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은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및 聯立住宅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5%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Table 7. Type of the Dwelling House by Region**

地域別 住宅形態

(Unit : %)

| Type           | All     | Metropolitan | Mid. & Small Cities | Rural   |
|----------------|---------|--------------|---------------------|---------|
| Detached House | 91.9    | 77.7         | 86.1                | 97.9    |
| Apartment      | 4.0     | 13.6         | 7.5                 | 0.1     |
| Row Houses     | 1.1     | 3.9          | 0.8                 | 0.2     |
| Others         | 2.9     | 4.8          | 5.7                 | 1.7     |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 (N of HH)      | (3,461) | (751)        | (470)               | (2,240) |

**Table 8. Status of the Dwelling by Region**

地域別 住宅所有狀態

(Unit : %)

| Status                | All     | Metropolitan | Mid. & Small Cities | Rural   |
|-----------------------|---------|--------------|---------------------|---------|
| Owned                 | 79.2    | 55.8         | 66.8                | 89.7    |
| Rented(Deposit Basis) | 8.2     | 22.7         | 13.5                | 2.2     |
| Rented(Montly Rent)   | 7.9     | 16.5         | 16.9                | 3.2     |
| Others                | 4.6     | 5.1          | 2.8                 | 4.9     |
| Total                 | 100.0   | 100.0        | 100.0               | 100.0   |
| (N of HH)             | (3,461) | (751)        | (470)               | (2,240) |

地域別로도 모든 지역에서 單獨住宅의 구성비율이 가장 높은 공통적인 경향이 있긴 하나 大都市의 경우는 아파트의 구성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郡部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경향이 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住宅의 所有狀態를 <表 8>에서 보면, 자기집인 경우가 79.2%이며, 傳貰나 月貰인 경우가 16% 정도로 나타나 老人單獨家口の 住宅所有率은 우리나라 全體 家口の 住宅所有率<sup>12)</sup>보다 약 2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地域別로는 郡部の 주택소유율이 약 90%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 住宅附帶施設 및 生活用品

주택의 부대시설인 暖房施設의 種類를 보면 재래식 아궁이가 3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연탄보일러, 연탄아궁이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장작 및 연탄을 난방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食水는 79% 정도가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업形態는 재래식이며, 입식부업은 약 15% 정도에 불과하였다. 化粧室의 形態도 역시 부업의 형태와 비슷한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8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즉, 老人單獨家口の 主要附帶施設은 아직도 재래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으며,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는 郡部の 가구에서 재래식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12) 경제기획원, 한국의 사회지표, 1988, p.229.

단독가구노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生活用品중에서 냉장고, 세탁기(탈수기), 전화, TV(라디오), 선풍기(에어콘)의 다섯가지 生活用品의 具備狀態를 보면, 이들 중에서 네가지 생활용품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두가지, 다섯가지 생활용품을 구비하고 있는 가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品目別로 보면 TV(라디오)를 구비하고 있는 가구는 88.8%, 선풍기(에어콘)는 79.9%, 냉장고는 65.4%, 전화는 53.2%, 세탁기(탈수기)는 16.4%의 가구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住居便易度 및 老人村 選好度

老人單獨家口의 周邊施設들 중에서 市場, 病院, 藥局을 利用하는데 있어서의 便易도와 交通便 利用의 便易度를 알아본 결과, 시장과 병원, 약국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52% 정도였으며, 교통편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경우는 48% 정도로 나타났는데, 地域別로는 시장다니기의 경우 大都市에서는 72% 정도가 편리하다고 응답한 반면 郡部에서는 36% 정도만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여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원, 약국 이용과 교통편 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역간의 차이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郡部の 老人單獨家口의 住居便易도가 他地域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끼리만 모여사는 주택단지인 老人村에 대한 單獨家口老人들의 選好度를 보면 노인촌을 선호하는 노인이 35.8%, 선호하지 않는 노인이 64.2%로 나타나 노인촌을 선호하는 비율이 낮긴하나 우리나라에서 노인들만 集團居住하는 住宅團地가 收容施設이외에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과 住居現實을 고려해 볼 때, 현 상태에서는 그 비율이 낮다고만은 할 수 없으며, 앞으로 老人村에 대한 選好도가 높아질 可能性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IV. 結 論

### 1. 研究結果 要約

本 研究는 單獨家口老人에 대한 福祉政策의 樹立을 위한 基礎資料를 生産하는데 基本目的을 두었으며, (1) 老人單獨家口의 地域別 分布 把握, (2) 老人單獨家口의 全般的 生活實態 把握의 細部目的下에서 實態調査를 實施하였다.

#### 1) 一般의 事項

老人單獨家口가全體家口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이며,老人家口중에서는 22.9%를 차지하고 있었는데,地域別로는大都市가 2.4%, 14.7%, 中小都市가 3.0%, 17.0%, 郡部가 11.3%, 30.9%로 군부에서의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단독가구의 家口形態別 構成比率은 女獨身家口가 37.4%, 兩夫婦家口가 35.2%로 두가지 가구형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男獨身家口와 女夫婦家口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단독가구노인의 性別 構成比率은 女子老人이 54.5%로 男子老人에 비해 약간 많았으며, 年齡別로는 60대 노인이 67.1%를 차지하고 있었다. 結婚狀態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경향은 年齡增加와 함께 有配偶率이 減少한다는 점과 男子老人의 有配偶率이 모든 연령층에서 9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教育程度別 分布에서는 無學이 59.3%로 가장 많았으며, 中學 以上の 教育을 받은 老人은 13.0%에 불과한데 전반적으로 男子老人의 教育水準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經濟事項

단독가구노인의 취업률은 51.5%로 60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에 비해 2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就業老人의 就業職種은 農水産業이 74.5%로 壓倒的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月平均 勤勞收入額數는 13만 4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취업 노인들의 就業理由는 대체로 經濟的인 理由가 많았으며, 그 다음이 健康維持와 時間을 보내기 위해서 였으며, 就業하지 않고 있는 理由는 健康上의 理由와 일이 힘에 겹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많았다.

노인단독가구의 주된 생활비 마련방안은 勤勞收入이 4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子女援助, 財産所得의 順으로 나타나 이 세가지 방안에 의해서 生活費를 마련하는 경우가 84%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방안에 의해 마련하여 지출하는 月生活費의 規模는 10만~15만원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月平均 生活費는 13만 5천원 정도였다. 노인단독가구의 負債現況을 보면, 34% 정도의 가구가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平均 負債額數는 329만 5천원이었다.

## 3) 健康事項

단독가구노인의 평소 健康狀態에 대한 主觀的 評價結果를 보면, 비슷한 연령층의 노인보다 더 건강하다고 한 노인이 31.3%, 비슷하다고 한 노인이 37.8%로 2/3 이상이 自身の 健康狀態에 대해 肯定的인 評價를 내리고 있었다. 3개월 이상 慢性疾患을 앓고 있는 노인은 49.0%이며, 두가지 이상의 重複疾患을 앓고 있는

노인도 9%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연령증가와 함께 그 비율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의 24.2%는 1個月間 醫療機關을 전혀 利用하지 않고 있었으며, 42% 정도는 월 4회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醫療機關別로는 1개월간 病·醫院과 藥局을 利用해 본 經驗이 있는 老人이 40% 정도인데 반해 保健所와 韓醫院을 이용한 노인은 20% 정도였다. 또 단독가구노인중 79% 이상의 노인이 身體 및 精神機能의 弱화로 인하여 日常生活을 修行함에 있어서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上·下肢機能이 불편을 주는 경우가 52%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記憶力, 視力, 家事活動의 順이었다.

#### 4) 住居事項

현재 단독가구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住宅의 形態로는 單獨住宅이 92%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住宅所有率은 79%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주택소유율보다 훨씬 높았다. 주택의 附帶施設중에서 煖房施設, 부엌施設, 化粧室 등은 재래식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食水의 경우에는 상수도가 7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노인단독가구의 生活用品 具備狀態를 보면, 냉장고, 세탁기, 전화, TV(라디오), 선풍기중에서 네가지 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가구가 31%로 가장 많았고, 品目別로는 TV(라디오)를 구비하고 있는 가구가 약 89%로 가장 높은 구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노인단독가구의 주변시설중에서 病院, 藥局, 市場을 利用하기가 不便한 가구는 52% 정도였으며, 交通便이 불편한 경우는 48% 정도였는데, 大都市보다도 郡部の 家口の 住居便易도가 낮은 경향이 있었다. 노인들끼리만 거주하는 老人村을 선호하는 단독가구노인은 1/3정도에 불과하지만 老人人口의 增加와 住宅現實을 고려해 볼때 선호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 2. 政策的 提言

### 1) 經濟事項

單獨家口로 生活하는 老人에게 있어서 勤勞所得은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으며, 취업 자체가 健康維持, 餘暇活用 및 自我實現의 機會가 될 수 있다. 취업노인의 경우 郡部에서는 農水産業에, 도시에서는 單純勞務職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적당한 일자리가 없거나 일이 힘에 겨워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볼 때, 高齡者에게 적합한 職種開發과 就業擴大를 위한 職業訓練 및 斡旋 등의 서비스를 制度化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最低生活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生活費로 生計를 維持하고 있는 老人에 대한 保護對策으로 公的扶助의 對象을 擴大適用해야 하며, 給與水準 역시 擴大해야 할 것이다.

## 2) 健康事項

단독가구노인의 절반정도가 慢性疾患을 앓고 있었으며, 상당수가 두가지 이상의 重複疾患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健康上的 問題가 야기되었을 때 援助를 청할 수 있는 支援體系가 없는 경우가 1/10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를 볼 때, 노인의 特徵的 醫療欲求를 充足시킬 수 있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老人專門 醫療機關이나 施設을 設立, 運營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老人患者에 대한 수발과 간호에 대한 負擔을 輕減시키고, 부족한 病床問題를 解消하기 위해 中間 醫療施設을 設置,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治療·再活的 側面的 對備策 뿐만 아니라 老人을 위한 健康診斷, 健康相談, 健康教育, 訪問指導 등을 통해 노인이 疾病狀態에 이르는 것을 사전에 豫防하고, 1次的인 醫療欲求를 地域社會內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地域社會保健센터의 機能과 施設을 擴充해 나가야 할 것이다.

## 3) 住居事項

노인의 家庭內에서의 活動時間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住宅內 附帶施設의 편리함에 대한 欲求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부엌, 화장실, 난방시설 등이 주로 재래식의 형태인 점을 근거로 해볼 때, 老年期の 身體的 機能 및 活動可能領域 등을 감안하여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住宅構造의 開發과 普及을 擴大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家族의 扶養機能 減退와 老年期에 所得이 減少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住宅을 所有하고 있는 單獨家口老人에 대해 財産稅를 포함한 税金減免과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위락시설 및 제반 생활시설을 갖춘 老人集團居住 住宅團地의 開發과 普及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경제기획원, 도시가계연보, 1987.
- \_\_\_\_\_ , 한국표준직업분류, 1974.
- \_\_\_\_\_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979.
- \_\_\_\_\_ , 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 1985.
- \_\_\_\_\_ , 한국의 사회지표, 1988.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87.
- 농림수산부, 농가경제 조사결과보고서, 1988.
- 조유향, 윤현숙, 노인에 대한 보건의료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한림대 사회의학 연구소, 1988.
- 지순 외, 노후의 가족관계와 노후생활에 대한 주의식 및 노후생활 주택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85.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1985.
- 厚生省 人口問題研究所, ねか國世帶數の將來推計(試論), 昭和62.
- 總務廳長官 官房老人對策室, 老人の生活と意識, 昭和62.
- 出根常男, 家族と福祉の未來, 全國社會福祉協議會, 昭和62.
- Crystal, S., *America's Old Age Crisis*, New York: Basic Books Inc., 1982.
- Lammers, W.W. and Klingman David, *State Policies and the Age*, Massachusetts : D.C. Health and Company, 1984.
- WHO, *Planning and Organization of Geriatric Services : Technical Report Series*, No.548, 1974.

## Study on the Elderly Living on Their Own

Ka-Oak Rhee\*, Jung-Don Kwon\*\*

Since the advent of industrialization, the size of older population has been growing rapidly, the family structure has been changing and the sense of obligation to support the aged has been weakening in Korea. As a result, the elderly living on their own (ELTO), that is the elderly living without their children or relatives, have been on the increase, while the stem family has declined.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the necessary basic data for a welfare policy formulation for the aged, especially for the ELTO. The specific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regional distribution, to analyz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ELTO.

A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on ELTO households out of about 70,000 sample households all over the country, and all the elderly aged 60 years and over in ELTO households were interviewed. The numbers of the analyzed cases of the ELTO and ELTO household in this study were 4,602 persons and 3,465 households respectivel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ELTO households were 5.2% of total households and 22.9% of the households in which the elderly aged 60 years and over lived.
2.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ELTO households was quite different from rural to urban areas: 11.3% in rural and 2.6% in urban areas respectively.
3. As for the employment and financial conditions, 51.5% of the ELTO were employed and 71.6% of them engaged themselves in agriculture. Of ELTO households, 44.6% supported themselves by an earned income, 28.8% received financial supports from their children.

---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4. Among the ELTO 49% reported that they had suffered from at least one chronic disease and 8.8% more than two. 24% of them had never utilized a medical institution during a month.

5. For physical ability and activity of daily living, 79% of the ELTO had suffered from at least one disability.

6. Of ELTO households, 91.9% lived in detached dwelling. As to the house ownership, 79.9% owned their own houses.

This results call for more public attention and endeavour to reinforce and bolster the existing informal and formal social support system for the ELTO and to develop the social welfare program for improving their living conditions.